

영적인봉사, 이타적인봉사.

세계 시혜자이며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는 오늘 그와 함께 봉사하는 동반자 자녀들을 보고 있다. 처음부터 봉사자 자녀들은 밥다다의 동반자였고 밥다다는 자녀들을 은밀한 도구로 만들었으며 그들이 마지막까지 세계에 봉사하도록 지금 그들을 드러냈다. 처음에 아버지 브라마와 브라민 자녀들은 봉사에서 남들에게 숨겨진 도구였다. 지금은 봉사자 자녀들로 구성된 삭티 군대와 판다브 군대가 세상 앞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주 뚜렷이 보인다. 봉사에 대한 대단한 열성과 열의가 대다수의 자녀들에게서 보인다. 처음부터 봉사에 대한 사랑이 있었으며 끝까지 그럴 것이다. 브라민의 생은 봉사의 삶이다. 브라민 영혼들은 봉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 마야에게서 너희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아 있는 고귀한 방법은 오직 봉사뿐이다. 봉사는 또 너희를 요그육트하게 만든다. 그런데 무슨 봉사이냐? 하나는 입으로 하는 봉사로 너희가 들은 것을 들려주는 봉사이다. 또 하나의 봉사는 너희들이 마음을 통해서 말하는 봉사, 즉 너희가 이제껏 들어온 다정한 말의 화신이 되고 너희의 모습을 통해서 봉사하는 이타적 봉사, 버림과 타파사의 형태를 통한 봉사, 한정된 욕망을 초월한 이타적인 봉사이다. 이것은 신을 위한 봉사, 영적 봉사라고 불린다. 그저 입으로만 하는 봉사는 단순히 제 스스로 만족하려는 봉사라고 한다. 모든 이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와 입을 통한 봉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음으로 봉사한다 함은 “만마나바브”의 상태에 있으면서 말로 봉사한다는 뜻이다.

오늘 밥다다는 그의 오른손인 봉사자 자녀들과 그의 왼손인 봉사자 자녀들, 양쪽을 모두 보고 있었다. 양쪽 유형 모두 봉사자들이지만 오른쪽과 왼쪽은 차이가 난다. 오른손은 항상 이타적인 봉사자이다. 왼손은 이번 생에 봉사의 한정된 결실 하나만 먹으려는 소망뿐인 봉사의 도구가 된다. 앞의 것은 은밀한 봉사자이고, 나중 것은 이름을 얻으려는 봉사자이다. 그는 한순간 봉사하고 그 다음 순간에는, “아주 좋군! 매우 훌륭해!”라는 식으로 이름을 얻는다. 하지만 너희는 지금 뭔가를 하고는 즉시 열매를 먹으며 계좌에 저축해두지 않는다. 은밀한 봉사자란 이타적인 봉사자라는 뜻이다. 하나는 이타적인 봉사자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을 원하는 봉사자이다. 은밀한 봉사자는 현재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한결같이 성공의 행복으로 가득한 상태로 머문다. 일부 어떤 자녀들은 “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도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반면에 겉으로 과시해서 봉사에서 명성을 얻는 자들의 이름은 많이 언급되는군”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불멸하는 이름을 얻는 이들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소리는 이타적으로 마음에 가 닿는다. 그것은 감춰진 채로 있을 수 없다. 참된 봉사자의 광채는 그의 얼굴과 모습에서 틀림없이 보인다. 이름을 얻으려는 봉사자가 여기서 이름을 얻으면, 비록 그것이 미래를 위해 행해진 것이라 해도 그가 열매를 따먹어서 끝냈으므로, 그는 미래를 고귀하게 또는 불멸하게 만들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모든 봉사자에 대한 기록을 완전히 다 갖고 있다. 계속해서 봉사하며 이름을 얻으려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 저축에 대해 생각해라. 불멸하는 열매에 대한 권리를 차지해라. 너희들은 각자 영원히 지속될 유산을 위해서 여기에 왔다. 만일 너희가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봉사의 열매를 먹는다면 영구히 지속될 유산에 대한 권리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인 욕망 없이 자유로운 이타적 봉사자로 지내라. 오른손이 되어 계속 봉사하며 전진해라. 은밀한 기부와 남들 모르게 봉사하는 데 더 큰 중요성이 들어 있다. 그런 영혼은 항상 내면이 가득한 상태일 것이며, 그는 태평한 황제이고 이름이나 명성에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는 이것에서 태평한 황제일 것이다, 즉 그는 유한한 존경의 옥좌가 아닌, 자아-존중의 옥좌에 늘 앉혀져 있을 것이다. 그는 자아-존중의 옥좌, 영원한 옥좌에

앉혀진다. 그는 영원하며 끝없는 성취의 옥좌에 앉혀진다. 이것은 세계 시혜자 봉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세계봉사의 과업에서 평범한 생각을 함으로써 성공을 얻는 데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버림과 봉사로 끊임없이 성공을 얻고 계속 전진해라. 이해하느냐?

누가 봉사자라고 불리느냐? 그래서 너희 모두는 봉사자이냐? 너희의 단계가 동요되게 만드는 봉사는 무엇이든 봉사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봉사에 동요가 많다고 생각한다. 봉사 안에는 장애가 있고, 너희에게 장애가 없도록 만드는 것은 봉사이다. 하지만 장애의 형태를 취한 봉사는 그 어느 것도 봉사가 아니다. 그것은 참된 봉사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며, 그저 이름만 봉사라고 불릴 것이다. 참된 봉사는 진품 다이아몬드다. 진품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결코 감춰져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봉사자는 진품 다이아몬드다. 인조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제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어느 것이 더 귀중하냐? 가치를 가진 것은 진품 다이아몬드다. 인공적인 것은 가치가 없다. 참된 봉사자들은 더없이 귀중한 보석이다. 참된 봉사자는 여러 생 동안 가치가 있다. 단지 명목뿐인 봉사는 일시적인 광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봉사자가 되어 계속 봉사해서 세계에 유익을 주어라. 너희는 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느냐?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에 비해서도 조금도 못하지 않다. 너희들 각자가 개인적인 특기를 가진 특별한 봉사자이다. 너희 스스로 덜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뭔가를 행한 후에는 이름 얻기를 전혀 바라지 마라.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데 너희의 봉사를 계속해서 바쳐라. 일반적으로 신봉의 길에서 은밀한 기부자, 자비로운 영혼들은 항상 만사 모든 것이 모든 이의 유익에 쓰여야만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 가운데 뭔가 자기 것이어야 한다든가 본인이 결실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다, 모든 이가 결실을 받게 해라. 그들은 모든 이에게 봉사하는 데 헌신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를 위한 욕망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모든 이에게 봉사해라. 계속해서 모든 이에게 유익을 주는 은행에 저축해라. 그러면 너희 모두 무엇이 되겠느냐? 이타적인 봉사자들이 된다. 너희들에 대해서 묻는 이가 지금은 아무도 없지만 그들은 2,500년 동안 너희에 대해 물을 것이다. 한 생 동안만 너희에 대해 묻는 것과 2,500년 동안 묻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크냐? 나중의 것이 더 크다, 그렇지 않느냐? 유한한 생각을 초월해 머물며 무한한 봉사자, 아버지의 마음의 옥좌에 앉은 태평한 황제가 되어 합류시대의 행복과 즐거움을 계속 축하해라. 만일 어떤 봉사가 너희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님을 이해해라. 뭔가가 너희를 동요시키거나 격변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다. 너희가 날아다니게 만드는 것이 봉사다. 봉사는 너희를 슬픔 없는 나라의 황제로 만든다. 너희는 그런 봉사자들이겠지? 슬픔 없는 나라의 태평한 황제, 황후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성공 그 자체가 그런 영혼들을 따르지, 그들이 성공을 쫓지는 않는다. 성공이 항상 그들을 뒤따른다. 앗차. 너희들은 무한한 봉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무한한 단계에서 무한한 봉사를 위해 세운 계획은 쉽게 성공한다. (2중의 외국인 형제자매들이 모든 영혼들에게 몇 분간의 평화를 기부하기를 원했다 - 평화를 위한 백만 분 모으기 제안.)

세상을 위대한 기부자로 만들려는 너희들의 이 계획은 좋다. 그들이 절박해서 그렇게 하든 사랑에서 그렇게 하든, 잠시 동안은 평화의 산스카르가 나올 것이다. 설령 그들이 프로그램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평화의 산스카르들은 나올 텐데, 왜냐하면 어차피 영혼들의 본래의 종교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평화의 대양의 자녀들이며, 또 평화의 나라의 주민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들이 프로그램에 의해 그것을 가져온다 해도 평화의 그 힘은 그들을 계속 끌어당길 것이다. 만일 어떤 이가 뭔가 단 것을 단 한 번 맛봤다면 그들이 단 것을 받든 못 받든 이미 맛본 단맛이 그들을 거듭 끌어당길 것이다. 이처럼 이것 역시 평화의 꿀을 맛보는 것과 같다. 그러니 평화의 이 산스카르들은 자동적으로 계속 그들을 일깨울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들 안에서 평화가 차츰 일깨워지게 해라. 이것은 그 영혼들을 기부자로 만들 뿐 아니라 그들에게 평화를 기부해주는 일이기도 하다. 너희 모두가 가진 순수한 생각은 영혼들이 가능한 한 어떻게든

평화를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평화도 역시 영혼들 내면의 평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겠느냐? 자연(원소들)도 인간들을 기반으로 기능한다. 영혼들이 평화를 인식하게 될 때 자연원소들은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최소한 평화롭지 못함을 초월해 있을 테며 1분의 평화는 계속 거듭해서 그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그렇기에 너희는 좋은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산소를 줘서 평화의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다. 사실 평화의 호흡이 없으면 그들은 의식을 잃는다. 그러므로 이 계획은 산소와 같다. 일부 어떤 이들은 조금 숨을 쉬기 시작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산소로 회생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제일 먼저 항상 열성과 열의로 평화의 집이 되어서 평화의 광선을 보내줘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의 평화의 광선과 평화의 생각의 도움으로 그들도 역시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어쨌든 너희 모두의 평화의 파동이 그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희망을 잃은 자들에게 희망의 광선을 보여주는 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절망한 자들 마음 안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이다. 어떤 이가 어느 정도로나 너희와 접촉해오든 가능한 한 너희는 반드시 그들에게 영혼의식의 평화와 마음의 평화를 몇 마디로 알려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이가 틀림없이 자기의 이름을 보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설령 대면이 아닌 서신이나 전화로 연락해온다 해도 그들은 너희와 연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느냐? 그들이 명단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능한 한 단 몇 마디로 평화의 의미를 설명해라. 영혼은 단 1분에도 그렇게 일깨워질 수 있다. 이해가 되느냐? 너희들 모두 계획을 좋아하지 않느냐? 남들은 그저 명목상으로만 일하는 반면 너희는 실제로 일을 한다. 너희는 평화의 메신저들이므로 평화를 전하는 이 소리가 온 사방에 메아리칠 것이며, 평화의 천사들이 계속 드러날 것이다. 그냥 너희들끼리 이것을 의논해서 “평화”라는 말에 덧붙일 말을 찾아내되, 다른 세속적인 것들과는 달라 보이는 말을 찾아라. 세상 사람들은 “평화 행진”이나 “피스”와 같은 말을 쓴다. 그러니 “평화”라는 말과 더불어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뭔가 다르다고 느낄, 세계의 보편적인 어떤 특별한 말에게 해라. 그래서 뭔가를 고안해내라. 하지만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한,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든 너희는 최소한 평화를 잃거나 남들을 평화롭지 못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된다. 너희가 평화를 놓아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일 먼저 너희 브라민들은 이 팔찌(이 약속을 하는)를 매야 한다. 너희 브라민들은 그들에게 이 팔찌를 매어주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너희들 먼저 이 팔찌를 매야만 비로소 남들에게 그것을 매어줄 수 있을 것이다. 50주년 골든 주빌리에 너희들 모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너희가 문젯거리가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이것에 거듭 밀줄을 그어라. 너희가 문젯거리가 되고 나서 문제의 화신이 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게 해라. 그래서 너희는 이 팔찌를 매고 싶지 않느냐? 제일 먼저 너희 스스로에게, 그 다음에 세계에 맨다. 너희들은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앗차.

오늘은 유럽 차례이다. 유럽도 역시 아주 크다, 그렇지 않느냐? 유럽이 큰 그 정도만큼 유럽에서 온 이들의 마음도 역시 큰 마음이야? 유럽에 확장이 있는 그만큼 봉사에 본질이 들어있다. 파괴의 불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것은 유럽에서 나왔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파괴의 수단들이 유럽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의 과업을 위해서 특별한 영혼들이 유럽에서 드러나야 한다. 폭탄들이 처음에는 지하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영혼들이 현재 은밀하게 지하에서 준비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드러날 것이며 계속 드러날 것이다. 모든 나라에 각기 고유한 특기가 있듯이 각 장소마다 그 나름의 특기가 있다. 유럽에서 온 도구들은 이름을 영광되게 빛내는 데 유용할 것이다. 과학의 도구들이 유용했던 것처럼 유럽의 도구들도 역시 소리를 퍼뜨리는 도구가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유럽일 것이다. 유럽에서 온 물건들은 항상 강하다. 모든 이가 독일제 물건들에 크나큰 중요성을 부여한다. 그러니 봉사의 도구인 중요한 영혼들도 역시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이해가 되느냐? 유럽은 다른 어느 곳 못지 않다. 계시의 장막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있다.

올바른 때에 너희는 무대 위에 오를 것이다. 너희들이 단기간에 확장을 아주 잘했고 아주 훌륭한 피조물을 창조한 것은 대단히 좋다. 이제 너희들은 그 피조물에 부양의 물을 주며 그것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 온 물질적인 것들이 강하듯이 그곳 출신의 영혼들 역시 특히 흔들림이 없고 부동하며 강할 것이다. 너희는 사랑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력은 노력이 아니지만 너희는 봉사를 매우 사랑한다. 사랑이 있는 곳은 어디든 장애가 와도 즉시 끝나고 너희들은 계속 성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전체 유럽의 질을 본다면 그것은 아주 좋다. 브라민들도 역시 중요한 인물(IP, important people)들이다. 그들은 어쨌든 IP들이다. 그러므로 사랑 가득한 고귀한 부양을 해줌으로써 유럽의 도구 봉사자들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특히 봉사의 현장에 그들을 데려와라. 땅은 열매를 맺을 땅이다. 아차. 너희는 아버지에게 속하자마자 남들을 아버지에게 속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특기를 가졌다. 너희는 용기가 좋으며, 이 용기로 인해 봉사 센터들이 계속 확장되게 만드는 선물을 받았다. 질을 높이고 양도 역시 늘려라. 두 가지가 서로 균형을 이루게 해라. 양의 아름다움은 질의 아름다움과는 다르다. 둘 다 필요하다. 단지 질만 있고 양이 없다면 봉사하고 있는 자들은 피곤해진다. 그래서 양쪽 다 각기 고유한 특기로 유용하다. 양쪽 유형의 봉사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90만 명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90만명 중에서 몇 명이 외국에서 만들어졌느냐? (5천 명입니다.) 좋다. 최소한 한 칼파의 숫자는 채워졌다. 외국 땅은 마지막에 와서 빨리 가는 축복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바라트보다 더 빨리 가야 하는데, 왜냐하면 바라트 출신들은 땅을 준비하려고 고되게 일해야 되기 때문이다. 외국 땅은 척박하지 않다. 여기서는 나쁜 것들을 먼저 들은 자들을 다시 좋게 만들어야 된다. 거기서 그들은 나쁜 것을 하나도 듣지 않았고 나쁜 것이나 잘못된 것을 듣지도 않았으니 그들은 아주 깨끗하다. 바라트 사람들은 먼저 각자의 석판을 닦고 나서 그 위에 써야 한다. 때에 따라서 외국 땅은 “마지막이니 빨리”라는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유럽은 몇 십만을 준비하려느냐? 너희가 이 “평화의 백만 분” 행사 프로그램을 켜오니 똑같은 방식으로 백성들을 만들 프로그램도 준비해라. 백성들을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백만 분을 모을 수 있거늘 백만 명의 백성을 준비할 수 없겠느냐? 바바는 백만에서 10만 명이 적은 90만 명만 요구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느냐? 힘을 많이 써서 준비해라. 아차. 2중의 외국인들은 2중의 행운을 가진다. 어떤 경우든 다른 이들은 모두 멀리를 한 번 들을 기회를 가지는 반면 너희는 2중의 기회를 받았다. 너희는 국제회의를 보았고 골든 주빌리도 역시 보았다. 너희들은 손위의 다디들도 봤다. 너희는 강가(갠지스), 자무나, 고다브리, 브람푸트라(인도의 주요한 4대 강) 등을 보았다. 너희는 시니어 다디들을 전부 다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 다디들 각자에게서 특질 한 가지를 선물로 가져가라, 그러면 유용할 것이다. 너희의 앞자락을 특질이라는 선물로 채워 갖고 가라. 이 선물들을 가졌다고 해서 세관원들이 너희를 막지는 않을 것이다. 아차.

변함없는 세계의 시혜자이며 참된 봉사자인 고귀한 영혼들에게, 세계 봉사를 위한 도구들에게, 항시 성공이라는 타고난 권리를 얻는 특별한 영혼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에게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가까운 영혼들에게, 늘 무한한 방식으로 이타적인 봉사자가 되어 날아다니는 단계에서 날아다니는 자들에게, 더블 라이트한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복: 천사인 너희 모습을 통해서 해방과 구원이라는 성스러운 제물을 바치는 해방과 구원의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라.

지금 현재 세상의 모든 영혼은 역경 때문에 울부짖고 있는데, 일부는 모든 것이 다 비싸기 때문에, 일부는 입으로 물리적으로 울부짖고 있으며, 일부는 신체의 질환 때문에, 일부는 그들 마음속의 평화롭지 못함 때문에 울고 있다. 모든 이의 시선이 평화의 탑에 쏠리고 있다. 괴로움의 울부짖음 후에 언제 승리의 외침이 있을지 보려고 모든 이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 천사인 너희들의 신체적인 모습으로 세상의 슬픔을 제거해라. 해방과 구원의 공여자 마스터가 되어서 신봉자들에게

해방과 구원이라는 성스러운 제물(프라사드)을 주어라.
슬로건: 오직 밥다다의 모든 지시를 실천하는 이들만이 본보기가 된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